

회의 기행  
제주, 제주어로 읊다!—「2024 제5회 제주학 주간」을 댕겨왕은에

# 會議紀實 濟州，以濟州語開啟—「2024第五屆濟州學週」

會議實錄  
チェジュ、チェジュ語で始める—「2024第5回チェジュ学ウィーク」  
Inquiring Jeju Through the Jeju Language: Observation from "the 5th Jeju Studies Week 2024"

韓語·華語 | 林茶英 (韓國國立全南大學學術研究教授)  
濟州語翻譯 | 金順子 (韓國濟州自治道濟州學研究中心中心長)  
圖 | 編輯部

한국어·중국어 | 임다영 (한국 국립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제주어 번역 | 김순자 (한국 제주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그림 | 편집부

2024年9月25至26日，在韓國濟州特別自治道濟州市，舉辦了以「濟州語，一起翱翔」為主題的「2024第五屆濟州學週」系列活動。該活動由三個部分組成——首日上午舉行的「2024濟州語論壇」，同日下午舉行的「2024第八屆濟州學大會」，以及翌日舉行的「2024濟州學探訪」。本次「濟州學週」系列活動的焦點，是濟州語的教育與濟州語的傳承。而主辦方濟州學研究中心金順子中心長，頗為用心地邀請到來自台灣國立政治大學的林修澈與黃季平教授，分享了台灣在「國家語言」和「原住民族語言」保護、教育與發展等方面的成功案例和努力方向。

## 何以「濟州語」

韓國語（或稱朝鮮語）通常被分為六大方言，即西北、東北、中部、西南、東南、濟州等。除濟州話差異較大，其他五種方言間可相

互對話，這與濟州話發展於孤立的小島上關係密切。濟州話與標準韓國語，雖在語法和句構方面相同點較多，但仍因存在大量本土特有詞彙、存古詞彙以及發音差異，導致兩者間較難溝通。因此有學者主張把濟州話，單列作韓國語語族下的獨立語言，即「濟州語」。2010年，濟州語被聯合國教科文組織，鑒定為瀕危語言中的第四級「極度危險（Critically Endangered）」級。

於2007年頒布、2016年修訂的《濟州語保護及培育條例》如此定義「濟州語」：「所謂濟州語，是指濟州特別自治道居民所使用的語言中，與道民文化特性相關的、能夠傳達濟州人思想和情感的傳統語言。」雖然濟州官方提出了「濟州語」這樣的用語，但並未明確其邊界——即如何不能作為韓國語下的一種方言，而是含糊作「濟州人所使用的傳統語言」，哪怕這種語言並非濟州話。因此有韓國學者就指



임수철 명예교수, 국립정지대학교 원주민족 연구 센터 황계평 센터장, 주최 측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  
本中心林修澈名譽教授、黃季平主任與主辦方濟州學研究中心金順子主任。



임수철 명예교수의 "키조강연" (Keynote Speech).  
林修澈名譽教授的「基調講演」 (Keynote speech)

出，「濟州語」這一概念，其政治意義大於學術意義。

在本次學會中，各界人士的討論的焦點也並未涉及濟州語的地位問題，而全然關注於濟州語的教育、保護與傳承。正如本次會議的主辦者金順子教授所言，希望借「濟州語」這樣的稱呼，喚起社會各界對地方文化與瀕危語言更多的關注。

## 「教育，與濟州語相遇：2024濟州語論壇」

活動的首場會議，是由濟州社會各界人士參與的圓桌論壇。濟州中學教師金敬玉 (Kim Gyoung-ok) 首先介紹了當前濟州語在中小學的教育狀況，她指出雖然同學們有著積極的學習意志，但教師們卻面臨著沒有統一的教學大綱和規範教材的窘境，而且全道各中小學，願意提供濟州語選修課程的學校只有濟州中學一所，因為本土化教育與應試教育發生矛盾對立。在討論過程中，多位與談人還提出應在社會層面，創造更為廣泛和頻繁的濟州語使用環境，使濟州的年輕人隨時隨地可以聽到濟州語、看到濟州語、說到濟州語，也讓來自國內

外的觀光客領略濟州的本土風情。

## 「悠久的語言，可持續的未來價值：2024第八屆濟州學大會」

本次活動的核心部分，即9月25日下午舉行的濟州學大會，由林修澈教授發表了題為「台灣語言的多樣性及其傳承的可能性」的主旨演講。林教授首先揭示了半世紀以來，台灣語言使用狀況的巨變，即台灣以華語為母語的人口，從戰後的14%陡增至今日的66%；而以台語為母語的人口，則從70%驟降至32%，客語和原住民族語言的使用降幅逼近90%，可見台灣本土語言的生存狀況危在旦夕。林教授從立法、民意、執行、體質、表記五個方面，討論了對台灣本土語言保護的措施，若高度概括則有兩個關鍵詞——即「國家」和「文字」。

「國家」，是語言保護最重要的外力。台灣的本土語言正在以「國家語言」的層次確立其名稱與地位；以「國家語言發展法」依法保護本土語言；以「國家語言發展會議」凝聚全國各界共識；以「國家語言專責機關」服務管理本土語言的應用；以「國家語言認證考試」



濟州語相關出版品。  
濟州語相關出版品。



黃季平主任與會討論原住民族語言的發展。  
黃季平主任與會討論原住民族語言的發展。



戀北亭。  
戀北亭。



濟州島上隨時可見因43事件犧牲者的慰靈碑。  
濟州島上隨時可見因43事件犧牲者的慰靈碑。



濟州島各地方都可見到43紀念館。  
濟州島各地方都可見到43紀念館。

規範語言水準，並使之與升學和就職相關聯等五個方面同時努力。在東亞文化中，「國家」的力量是頗為重要的，本土語言唯有「中央化」與「體制化」才能長久發展。

「文字」，是語言保護最必要的內在。文字是語言傳續的基石，是文明記錄的載體，沒有文字的语言無法長久傳承。因此林教授在談到台語的傳承時，著重提到了台語的文字記錄問題。與濟州語和標準韓國語的關係相似，台語與華語間也存在大量共有詞彙和相似的語法，因此林教授主張不應廢棄漢字，而應採用「國漢混用體」行文——即以漢字記錄實詞和漢字詞，以羅馬字記錄虛詞和本土詞。因台語與華語屬同系同族，因此擁有大量同源詞，且漢字擁有強大的造詞功能，故保留漢字混用有利於台語的可持續發展。這一點也值得標準韓國語或濟州語借鑒。

此後，又有來自國立首爾大學的鄭承喆 (Jung Seung-chul) 教授、國立韓字博物館文英恩 (Moon Young-eun) 研究員、濟州學研究中心金美辰 (Kim Mi-jin) 研究員以及江陵方言保存會李希卿 (Lee Hee-kyoung) 事務局長，針對「促進方言

在媒體表現中的正面形象」、「方言的博物館展示」、「濟州語的制度化保障」以及「江陵方言保護經驗分享」等方面進行了分別發表。

在綜合討論環節中，黃季平教授分享了台灣原住民族語言的搶救措施，包括族語認證的舉辦、「千詞表」單詞競賽、語言競賽、族語文學獎的創辦、維基百科推廣族語的實驗性、師徒制的效果等六方面。隨後，有韓國學者提問台灣原住民族語言教育的保障有哪些，黃教授從如下幾方面予以回應：首先是以羅馬字為各原住民族的語言和方言創造文字，使其具備規範的書寫體系，並在全國推廣；其次是編寫16族42語別的教學大綱、學習教材、教輔用書、課外讀物等，並由教育部統一發放；再次是將族語教育納入「國民教育九年一貫制」課程體系，使之與義務教育和大學聯考相關聯；最後是對族語掌握者或傳承人進行財政支持，包括對師徒制傳承中的族語教授者與學習者，給予薪資補助；對持有族語認證的公務員進行薪資補助等。從台灣的這些成功舉措可以看出，「國家」和「文字」亦是台灣原住民族語言，得以可持續發展的關鍵保障。台灣的案例也為

濟州語的發展困境提供了可參考的經驗。

### 「去吧，濟州語：2024濟州學探訪」

9月26日，主辦方帶領與會人員及部分濟州藝文界人士一同，探訪了書寫著濟州人民「恨」的濟州語文學作品的背景地。參訪以「四三事件」事發地觀德亭為起點，一路東行至美軍政當局，關押無辜百姓的酒精工廠，來到《濟州島在哭泣》的創作地朝天里，經過千餘名兒童被屠殺的北村里，最終在焦土掃蕩不留一吋淨土的水簾窟 (Sa-ri-mul-gwe) 結束行程。「四三事件」是發生在1948年4月3日韓半島光復後美軍政當局對濟州島民眾，持續六年半的屠殺事件。雖然我們追隨的文學作品控訴的都是「四三事件」，但一路途經的戀北亭、濟州抗日紀念館等地，讓我們愈發感受到濟州人民的「恨」，又豈止於對日本殖民者剝削與壓迫的「恨」，豈止於高麗和朝鮮時期朝廷忠臣被流放的「恨」，豈止於徐福與眾童子因秦始皇的任性而不得歸鄉的「恨」……這些「恨」，是濟州作為陸地外的孤島而被隔離、被邊緣、被忽視，乃至被任人蹂躪和宰割的

「恨」，是只有濟州語才能表達的「恨」。唯有保留濟州語、在文學中放生濟州語，才能使濟州去邊緣化，成為自我的中心。

有趣的「戀北亭」有必要稍作解釋。戀北亭位於朝天邑朝天里，這兩處地名的得名有兩種說法：一說因濟州島是封建王朝專門流放犯人的地方，許多政治鬥爭失敗的朝臣也被流放於此，因他們期盼早日平反而回歸都城，因此以「朝天拜君王」、「戀北向漢陽」的心情命名此地；另一說是該命名，可更早追溯至徐福東渡之時，因此此處所「朝」之「天」非朝鮮君主，而是秦皇；所「戀」之「北」並非漢陽而是咸陽。

如同林修澈教授所總結的那樣，本次「濟州學週」是一次「有高度、有深度、有遠度」的活動。恕筆者借題發揮，我認為從本次會議給濟州語發展帶來的啟示來看，「國家」勢力的介入是其「高度」，「文字」書寫混用漢字是其「深度」，放生本土語言在口語和書面語中的廣泛使用是其「遠度」。可以說台灣對本土語言保護的措施，是值得濟州語傳承者學習與借鑒的。◆

## 濟州語 | 회의 기행 제주, 제주어로 올다! — 「2024 제5회 제주학 주간」을 덩겨왕은에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2024 제5회 제주학 주간」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다. '제주어, 올다 놀아 보게!'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 첫날인 25일 오전에는 「2024 제주어 포럼」, 그날 오후에는 「2024 제8회 제주학 대회」, 그리고 둘째날인 26일에는 「2024 제주학 탐방」이 각각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학 주간은 제주어 교육과 계승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임수철 명예교수님과 대만 원주민족연구센터 황계평 주임을 초청하였다.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언어」 및 「원주민언어」에 대한 보호 및 교육과 발전에 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주어」란

한국어의 방언은 통상 6대 방언으로 분류한다. 즉, 서북방언, 동북방언, 중부방언, 남부방언, 동부방언, 경서방언 제주방언이다. 주지하듯 제주방언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방언은 서로 소통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처럼 제주방언이 다른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제주도가 고립된 섬이었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문법이나 문장구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주방언과 한국어 표준어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경서 제주방언에만 나타나는 어휘나 제주지역에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온 어휘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제주방언을 한국어 어족에 속한 독립적인 언어로서의 「제주어」로 봐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되었던, 2016년에 일부 개정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는 제주어를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 정체성 관련 어휘,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통적인 언어를 가리킨다.”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용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이다. 위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제주어를 한국어의 하위 언어로 분류하지 않던 제주 사람들이 쓰는 전통적인 언어라는 표현을 통해 불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제주어」를 학술적 의미보다 정치적 함의가 더욱 큰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2010년 12월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언어 소멸 과정의 네 번째인 D단계에 해당하는 「치명적으로 위태로운(Critically Endangered)」언어로 분류한 바 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을 반영한 듯 이번 학회에서는 제주어의 위상

보다는 제주어 교육 및 보전과 전승에 초점을 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번 회의의 주최자인 김순자 센터장의 발언처럼 「제주어」라는 호칭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지역 문화 및 소멸 위기 언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기를 바란다.

### 교육, 제주어를 만나다: 2024 제주어 포럼 '놀'

「제주학 주간」의 첫 번째 행사는 제주 사회 하간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원탁 포럼이었다. 제주중학교 교사 김경옥 씨는 현재 제주도의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주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학생들의 학습의지는 막 적극적으로주만, 통일된 제주어 학교 문법과 교재가 없던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적하였다. 경서곡 도내 중학교가 운디 제주어 수업 의사를 밝힌 학교는 단 한 학교에 불과했던 현명 이는 지역 화 교육과 입시 교육이 서로 충돌하여 분 때문이었던 설명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오라 발표자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제주어를 보다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주어를 보고, 듣고,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하였다. 경서곡 이를 통칭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오래된 언어,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 2024 제8회 제주학 대회

「제주학 주간」의 핵심 행사인 제주학 대회는 9월 25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대만의 임수철 교수가 「대만 언어의 다양성과 그 전승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임 교수는 먼저 지난 반세기 동안 대만의 언어 사용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대만에서 중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종전 직후에는 14%에 불과하였던 현재 66%로 급증한 반면, 대만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70%에서 32%로 급감하고, 심지어 객가어와 원주민 언어의 사용은 90% 가까이 감소하였던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대만의 본토언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점을 보여주었다. 임 교수는 입법, 여론, 집행, 정책성, 표기법 등을 다룬 다섯 가지 측면에서 대만 본토언어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두 가지 키워드, 즉 「국가」와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는 언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외적 역량이다. 대만의 본토언어는 현재 「국가언어」차원에서 그 명칭과 지위를 확립하여 「국가언어 발전법」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국가언어 발전 회의」를 통해 대만 사회 각계의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경서곡 대만에서는 「국가언어 전담기관」이 본토언어 사용을 관리하고, 「국가언어 인증시험」으로

언어 레벨을 규명하여 이를 진학 및 취업에 연관시키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국가」의 힘은 막 중요하다. 본토언어는 「중화화」 및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문자」는 언어 보호에 있어서는 질로 필수적인 내적 역량이다. 문자는 언어 전승의 기반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문자가 웃인 언어는 오랫동안 보존되기 어렵다. 임 교수는 대만의 전승과 관련된 현상 논의를 대만의 문자 기록 문제를 특히 강조하였다. 제주어와 한국어 표준어의 차이만 가지지 않고 대만어와 중국어 간에도 공통된 어휘가 허영존재는, 두 언어의 문법 역시 매우 유사한 현상은 점을 들어 임 교수는 한자의 사용을 폐지할 게 아니라 이른바 「국한혼용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주장하였다. 즉 실사상 한자어는 한자로 주표, 허사상 본토언어는 로마자로 주표하는 것이다. 특히 대만어와 중국어는 같은 계통의 어족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다수의 동원어를 공유하여 있고, 한자는 풍부한 조어 기능을 갖기 때문에 한자 혼용 표기는 대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현상은 설명도 덧붙였다. 이 점은 제주어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조 강연의 다음 순서로는 서울대학교의 정승철 교수, 한글박물관의 문영은 학예연구사, 강릉말 사투리 보존회의 이희경 사무국장, 경서곡 제주학연구센터의 김미진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심, 지역어」, 「문화다양성의 보고, 지역어를 전지하다」, 「강릉말 지키기! 어서 오우야, 강릉이래요」, 「제주어 교육과 「이후세대」 제주어」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 대만원주민족연구센터 주임 황계평 교수는 「원주민족어 인증시험 실시」, 「천 단위 경진대회」, 「언어 경연대회」, 「원주민족어 문학상 창설」, 「위키백과를 통한 원주민언어 실천 확산」, 「멘토제의 효과」 등 총 5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대만 원주민 언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개하였다. 토론에 참가한 한국의 학자들이 대만이 원주민 언어 교육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황 교수는 다음의 네 가지 방책을 들며 답변하였다. 첫째, 로마자를 이용하여 원주민의 언어 및 방언을 죽일 수 있는 문자를 제정하고, 표준 정서법을 마련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둘째, 16개 민족의 42가지 방언을 기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학습 교재와 독서자료 등을 편찬하여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였다. 셋째, 원주민족어 교육을 「국민교육 9년 일관제」, 커리큘럼 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무교육과 대학입시교육을 연결시켰다. 넷째, 원주민족어 숙련자 및 전승자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던 멘토제를 통해 원주민족어를 전승하는 교수자과 학습자에 대한 보조금, 원주민족어 인증자격을 인정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대만의 이처럼 성공적인 조치들은 「국가」와 「문자」가 대만 원주민 언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량임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제주어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단서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도 있다.

### 글라, 제주어: 2024 제주학 탐방

행사 주최 측은 대회 이틀치인 26일, 행사 참가자과 제주도의 예술문화를 인사들과 함께 제주인들의 「한(恨)」을 담아 이신 제주어 문학 작품들 속 배경지를 탐방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주43사건의 발생지이자 김석범의 소설 『까마귀의 죽음』의 배경지이기도 한 관덕정을 둘러본 후 제주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경훈의 소설 『제주항』 소읍에 등장하는, 미군정 당국이 무고한 주민들을 감금하여난 주정공장을 방문하였다. 이영 현기영의 소설 『제주도 우다』의 배경지인 조천리, 경서곡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스물꽃 놀림」에 등장하는 천여 명의 두란이들이 학살되어난 복춘리를 걸친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된 마을에서 도망친 주민들이 굶어난 사리물계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쳤다.

제주시 조천읍에 연복정이라 불리는 조선시대의 정자가 있다. 연복정의 명칭은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제주로 유배 온 사람들이 한양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지들리며 복춘에 계시는 임금을 사모하던 현은 충정의 뜻에서 유래되었던 현은 설이다. 즉, 정치적 투쟁에서 패배한 한신하들이 제주도에 유배되어신다. 그 사람들은 하루빨리 역을 풀고 도성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 지명을 붙였을 현은, 또 설에 따르면 이 명칭은 진시왕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찾아 제주에 간 서복의 전설 2장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머리를 조아리는 대상이 조선의 군주가 아닌 진시왕을 그리며, 그 리운 복춘 역시 한양이 아닌 함양을 의미하는 현은 보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곳들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은 단 43사건을 고발한 작품들이지만, 중간에 들른 연복정 제주 항일기념관 등지에서 우리는 제주 사람들의 「한」이 일본 제국주의의 착취와 억압에 대한 「한」,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에 제주로 유배당한 충신들의 「한」, 나아가 진시왕의 횡포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여난 서복과 동생들의 「한」으로 이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제주 사람들의 이처럼 「한」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고립된 소외당하며, 때로는 차별 받고 심지어 누굴가에 의 현은 유린당하고 희생당한 제주가 저겨온 「한」이자, 오고생이 제주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한」일 것이다. 제주어를 보존하고, 문학 소읍에서 제주어를 살릴 수 있겠 현은 제주는 육지의 주변부에서 벗어난 자아의 중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임수철 교수가 결론지었듯이 이번 「제주학 주간」은 노포곡 지프곡 넘은 행사였다.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빌려 이번 행사가 제주어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돌아보면 「국가」의 힘의 개입을 그 「놀이」를 할 수 있고, 「문자」 기록에서 한자과 혼용하여 쓰는 것을 그 「깊이」를 할 수 있고, 본토언어가 구어과 문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그 「넓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어 전승자들이 대만의 본토언어에 대한 보호 정책에서 한 「한」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다. ◆

## 韓語 | 회의기행 제주, 제주어로 열다! — 「2024 제5회 제주학 주간」을 다녀와서.

**지난** 9월 25일에서 26일까지 이틀간,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2024제5회 제주학 주간」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다. 「제주어, 함께 날아 보자(제주어, 혼디 놀아 보게)」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사 첫날인 25일 오전에는 「2024제주어포럼」이, 같은 날 오후에는 「2024제8회 제주학 대회」가, 그리고 둘째날인 26일에는 「2024제주학 탐방」이 각각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학 주간」은 제주어 교육 및 계승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를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김순자 센터장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임수철 명예교수와 대만 원주민족연구센터 황계평 주임을 초청하여,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언어」 및 「원주민언어」에 대한 보호 및 교육과 발전에 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주어」란

한국어의 방언은 통상 6대 방언으로 분류된다. 즉, 서북방언, 동북방언, 중부방언, 남부방언, 동부방언 그리고 제주방언이다. 주지하듯 제주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방언은 서로 소통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처럼 제주방언이 다른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제주도가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문법이나 문장구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주방언과 한국어 표준어는 유사한 측면이 매우 많다. 그러나 제주방언에만 나타나는 어휘나 제주지역에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온 어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발음 역시 다르기 때문에 육지 방언들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제주방언을 한국어 어족에 속한 독립적인 언어로서의 「제주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되어, 2016년에 일부 개정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는 제주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 용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이다. 위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어를 한국어의 하위 언어로 분류하지 않고 “제주 사람들이 쓰는 전래적인 언어”라고 하여 다소 불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제주어」를 학술적 의미보다 정치적 함의가 더욱 큰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2010년 12월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언어 소멸 과정의 네 번째인 D단계에 해당하는 「치명적으로 위태로운(Critically Endangered)」언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듯 이번 학회에서는 제주어의 위상보

다는 제주어의 교육 및 보전과 전승에 초점을 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번 회의의 주최자인 김순자 교수의 발언처럼 「제주어」라는 호칭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지역 문화 및 소멸 위기 언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 교육, 제주어를 만나다: 2024 제주어 포럼 '눈'

「제주학 주간」의 첫번째 행사는 제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원탁 포럼이었다. 제주중학교 교사 김경옥씨는 현재 제주의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의지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통일된 제주어 학교 문법과 교재가 없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내 중학교 가운데 제주어 수업 의사를 밝힌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이는 지역화 교육과 입시 교육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여러 발표자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제주어를 보다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주어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오래된 언어,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 2024 제8회 제주학 대회

「제주학 주간」의 핵심 행사인 제주학 대회는 9월 25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대만의 임수철 교수가 「대만 언어의 다양성과 그 전승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임교수는 먼저 지난 반세기 동안 대만의 언어 사용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대만에서 중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종전 직후에는 14%에 불과했으나 현재 66%로 급증한 반면, 대만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70%에서 32%로 급감했고, 심지어 객가어와 원주민 언어의 사용은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대만의 본토언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임교수는 입법, 여론, 집행, 정체성, 표기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대만 본토언어 보호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두 가지 키워드, 즉 「국가」와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는 언어를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외적 역량이다. 대만의 본토언어는 현재 「국가언어」 차원에서 그 명칭과 지위를 확립하고 있고, 『국가언어 발전법』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언어 발전 회의」를 통해 대만 사회 각계의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는 「국가언어 전달기관」이 본토언어 사용을 관리하고, 「국가언어 인증시험」으로

언어 레벨을 규범화하여 이를 진학 및 취업에 연관시키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국가」의 힘은 매우 중요한데, 본토언어는 「중앙화」 및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문자」는 언어 보호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내적 역량이다. 문자는 언어 전승의 기반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문자가 없는 언어는 오랫동안 보존되기 어렵다. 임교수는 대만어의 전승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대만어의 문자 기록 문제를 특히 강조하여 말했다. 제주어와 한국어 표준어의 사이와 마찬가지로 대만어와 중국어 간에도 공통된 어휘가 다수 존재하며, 두 언어의 문법 역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임교수는 한자의 사용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한혼용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실사와 한자어는 한자로 적고, 허사와 본토언어는 로마자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만어와 중국어는 같은 계통의 어족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수의 동원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자는 풍부한 조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 혼용 표기는 대만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점은 제주어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조 강연의 다음 순서로는 서울대학교의 정승철 교수, 한글박물관의 문영은 학예연구사, 강릉말 사투리 보존회의 이희경 사무국장,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의 김미진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심, 지역어」, 「문화다양성의 보고, 지역어를 전시하다」, 「강릉말 지킴이! 어서 오우야, 강릉이래요」, 「제주어 교육과 '이후세대' 제주어」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 대만원주민족연구센터 주임 황계평 교수는 '원주민족어 인증시험 실시', '천 단어 경진대회', '언어 경연대회', '원주민족어 문학상 창설', '위키백과를 통한 원주민언어 실천 확산', '멘토제의 효과' 등 총 여섯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만 원주민 언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개했다. 토론에 참가한 한국의 학자들이 대만이 원주민 언어 교육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황교수는 다음의 네 가지 방책을 들어 답변했다. 첫째, 로마자를 이용하여 원주민의 언어 및 방언을 적을 수 있는 문자를 제정하고, 표준 정서법을 마련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둘째, 16개 민족의 42가지 방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학습 교재와 독서자료 등을 편찬하여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였다. 셋째, 원주민족어 교육을 「국민교육 9년 일관제」, 커리큘럼 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무교육과 대학입시교육을 연결시켰다. 넷째, 원주민족어 숙련자 및 전승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멘토제를 통해 원주민족어를 전승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에 대한 보조금, 원주민족어 인증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대만의 이러한 성공적인 조치들은 「국가」와 「문자」가 대만 원주민 언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량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제주어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 글라, 제주어: 2024 제주학 탐방

행사 주최 측은 대회 이틀째인 26일, 행사 참가자 및 제주의 예술문화계 인사들이 함께 제주인들의 「한(恨)」을 담고 있는 제주어 문학 작품들 속 배경지를 탐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 4.3사건의 발생지이자 김석범의 소설 『까마귀의 죽음』의 배경지이기도 한 관덕정을 둘러본 뒤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경훈의 소설 『제주항』 속에 등장하는, 미군정 당국이 무고한 주민들을 감금했던 주정공장을 방문했다. 이어서 현기영의 소설 『제주도우다』의 배경지인 조천리, 그리고 「놀이때 한라산」의 마당극 「시월곳 꽃놀이」에 등장하는 천여명의 어린이들이 학습되었던 북촌리를 거쳐,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된 마을에서 도망친 주민들이 숨어있었던 사리물개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시 조천읍에 연복정이라는 조선시대의 정자가 있다. 연복정의 명칭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제주로 유배 온 사람들이 한양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북쪽에 계시는 임금을 사모한다는 충정의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즉, 정치적 투쟁에서 패배한 많은 신하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그들은 하루빨리 역올함이 풀려 도성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이 명칭은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찾아 제주에 간 서복의 전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머리를 조아리는 대상이 조선의 군주가 아닌 진시황을 가리키며, 그리운 북쪽 역시 한양이 아닌 함양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 걸었던 곳들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은 모두 4.3사건을 고발한 작품들이지만, 중간에 들른 연복정과 제주 항일기념관 등지에서 우리는 제주 사람들의 「한」이 일본 제국주의의 착취와 억압에 대한 「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제주로 유배당한 충신들의 「한」, 나아가 진시황의 횡포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서복과 동자들의 「한」으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 사람들의 이러한 「한」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때로는 차별 받고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 유린당하고 희생당한 제주가 겪어온 「한」이자, 오직 제주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한」일 것이다. 제주어를 보존하고, 문학 속에서 제주어를 살릴 수 있다면 제주는 육지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자아의 중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임수철 교수가 결론지었듯이 이번 「제주학 주간」은 높고 깊으며 넓은 행사였다.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빌려 이번 행사가 제주어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말하자면, 「국가」의 힘의 개입을 그 「높이」라고 할 수 있고, 「문자」 기록에서 한자와 혼용하여 쓰는 것을 그 「깊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토언어가 구어와 문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그 「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어 전승자들이 대만의 본토언어에 대한 보호 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

## 韓漢混用 | 會議紀行 濟州, 濟州語로 열다! — 「2024 第5回 濟州學週間」을 다녀와서.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韓國 濟州特別自治道 濟州市에서는 「2024 第5回 濟州學週間」 關聯 行事가 開催되었다. 「濟州語, 함께 날아 보자!」라는 主題를 내건 이 番 行事는 總 3個의 세션으로 構成되었으며, 行事 첫날인 25日 午前에는 「2024 濟州語포럼」이, 같은 날 午後에는 「2024 第8回 濟州學大會」가, 그리고 둘째날인 26日에는 「2024 濟州學探訪」이 各各 進行되었다. 이 番 「濟州學週間」은 濟州語教育 및 繼承에 焦點을 두었는데, 이를 爲해 濟州學研究센터의 金順子센터 長은 臺灣國立政治大學校 林修澈 名譽教授와 臺灣原住民族研究센터 黃季平主任을 招請하여, 臺灣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國家言語」 및 「原住民族言語」에 對한 保護 및 教育과 發展에 對한 成功 事例을 共有하고 韓國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方向에 對한 助言을 講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濟州語」란

韓國語의 方言은 通常 6大 方言으로 分類된다. 卽, 西北方言, 東北方言, 中部方言, 南部方言, 東部方言 그리고 濟州方言이다. 周知하듯 濟州方言을 除外한 나머지 다섯 個 方言은 서로 疏通하는 데 別다른 問題가 없다. 이처럼 濟州方言이 다른 方言과 큰 差異를 보이는 理由는 濟州道가 孤立된 섬이라는 地理的 特性과 關聯이 있다. 文法이나 文章構造 側面에서 보았을 때 濟州方言과 韓國語標準語는 類似한 側面이 매우 많다. 그러나 濟州方言에만 나타나는 語彙나 濟州地域에 오래前부터 傳承되어 온 語彙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發音 亦是 다르기 때문에 陸地 方言들과의 疏通은 決코 쉽지 않다. 이러한 理由로 一部學者들은 濟州方言을 韓國語語族에 屬한 獨立的인 言語로서의 「濟州語」로 보아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한다.

지난 2007年에 制定되어, 2016年에 一部改訂된 『濟州語 保全 및 育成 條例』에서는 濟州語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이 條例에서 「濟州語」란 濟州特別自治道에 居住하는 사람들이 使用하는 言語 中에서 道民의 文化正體性과 關聯 있고, 濟州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傳達하는 데 쓰는 傳來的인 言語를 말한다.” 地方政府가 公式的으로 「濟州語」라는 用語를 使用하기 始作했지만, 이 用語의 境界는 相當히 模糊한 狀態이다. 위의 定義에서도 確因할 수 있듯이 濟州語를 韓國語의 下位言語로 分類하지 않고 “濟州 사람들이 쓰는 傳來的인 言語”라고 하여 다소 不明確한 定義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의 一部學者들은 「濟州語」를 學術的意味보다 政治的含意가 더욱 큰 概念으로 보기도 한다.

2010年 12月 유네스코는 濟州語를 言語消滅過程의 네 番째인 D段階에 該當하는 「致命的으로 危殆로운(Critically Endangered)」言語로 分類한 바 있다. 이러한 危機 狀況을 反映한 듯 이 番 學會에서는 濟州語의 位相보다는 濟州語의 教育 및 保全과 傳承에 焦點을 둔 論議가 主를 이루

었다. 이 番 會議의 主催者인 金順子教授의 發言처럼 「濟州語」라는 呼稱을 통해 社會各界各層이 地域文化 및 消滅危機言語에 對해 더 많은 關心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 教育, 濟州語를 만나다: 2024 濟州語포럼 '놀'

「濟州學週間」의 첫번째 行事는 濟州社會 各 分野에서 活動하는 사람들이 參與하는 圓卓 포럼이었다. 濟州中學校 教師 金敏玉氏는 現在 濟州道의 中等學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濟州語教育의 現況에 對해 紹介하면서, 學生들의 學習意志는 매우 積極的이지만, 統一된 濟州語學校文法과 教材가 없어서 教師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또한 道內 中學校 가운데 濟州語 授業意思를 밝힌 學校는 但 한 곳에 不過하며 이는 地域화 教育과 入試教育이 서로 衝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討論에 參與한 여러 發表者들은 社會의 次元에서 濟州語를 보다 活潑하게 使用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함으로써 濟州地域의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濟州語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提案했다. 또한 이를 통해 國內外觀光客들이 濟州 固有의 情趣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點도 強調했다.

### 오래된 言語, 持續 가능한 未來 價値: 2024 第8回 濟州學大會

「濟州學週間」의 核心行事인 濟州學大會는 9月 25日 午後에 進行되었다. 첫 番째 順序로 臺灣의 林修澈教授가 「臺灣言語의 多樣性과 그 傳承可能性」이라는 主題로 基調講演을 했다. 林教授는 먼저 지난 半世紀 동안 臺灣의 言語使用變化에 對해 言及하였다. 卽 臺灣에서 中國語를 母語로 使用하는 人口가 終戰直後에는 14%에 不過했으나 現在 66%로 急增한 反面, 臺灣語를 母語로 使用하는 人口는 70%에서 32%로 急減했고, 甚至於 客家語와 原住民族言語의 使用은 90% 가까이 減少했다는 事實을 指摘하며, 이는 臺灣의 本土言語가 매우 危殆로운 狀況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林教授는 立法, 輿論, 執行, 正體性, 表記라는 다섯 가지 側面에서 臺灣 本土言語 保護 方案을 論議했는데, 이를 要約하면 두 가지 키워드, 卽 「國家」와 「文字」로 整理할 수 있다.

「國家」는 言語를 保護하는 데 있어 가장 重要한 外的인 力量이다. 臺灣의 本土言語는 現在 「國家言語」次元에서 그 名稱과 地位를 確立하고 있고, 「國家言語發展法」으로 法的으로 保護받고 있으며, 「國家言語發展會議」를 통해 臺灣社會各界의 共感帶를 모으고 있다. 또한 臺灣에서는 「國家言語專擔機關」이 本土言語使用을 管理하고, 「國家言語認證試驗」으로 言語레벨을 規範化하여 이를 進學 및 就業에 關聯시키는 등 多方面에서 多樣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東아시아文化에서 「國家」의 힘은 매우 重要한데, 本土言語는 「中央化」 및 「制度化」가 이루어져야 長期的인 發

展이 可能하다.

「文字」는 言語 保護에 있어서 가장 必須的인 內的인 力量이다. 文字는 言語傳承의 基盤이자 歷史를 記錄하는 手段으로, 文字가 없는 言語는 오랫동안 保全되기가 어렵다. 林教授는 臺灣語의 傳承과 關聯하여 論議할 때 臺灣語의 文字記錄問題를 특히 強調하여 말했다. 濟州語와 韓國語標準語의 사이와 마찬가지로 臺灣語와 中國語 間에도 共通된 語彙가 多數存在하며, 두 言語의 文法 亦是 매우 類似하다는 點을 들어 林教授는 漢字의 使用을 廢止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國漢混用文」을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主張했다. 卽 實辭과 漢字어는 漢字로 적고, 虛辭와 本土言語는 로마자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臺灣語와 中國語는 같은 系統의 語族에 屬하는 言語이기 때문에 多數의 同源語를 共有하고 있으며, 漢字는 豊富な 造語 技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漢字混用表記는 臺灣語의 持續 가능한 發展에 有利하다는 說明도 덧붙였다. 이 點은 濟州語의 保護方案을 마련할 때 參考할 만한 部分이라고 볼 수 있다.

基調 講演의 다음 順序로는 서울大學校의 정승철教授, 한글博物館의 文英恩 學藝研究士, 江陵말 사투리 保存會議 李希卿 事務局長, 그리고 濟州學研究센터의 金美辰 專門研究委員이 各各 「文化多樣性教育의 中心, 地域語」, 「文化多樣性的인 寶庫, 地域語를 展示하다」, 「江陵말 지키기! 어서 오오야, 江陵어래요」, 「濟州語教育과 「이루우제」 濟州語」 등을 主題로 發表를 이어갔다.

綜合討論 세션에서 臺灣原住民族研究센터 主任 黃季平教授는 「原住民族語認證試驗 實施」, 「千單語競進大會」, 「言語競演大會」, 「原住民族語文學賞 創設」, 「위키百科를 통한 原住民族語 實踐擴散」, 「멘토制의 效果」 등 總 여섯 가지 方面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臺灣原住民族言語에 對한 保護措置를 紹介했다. 討論에 參加한 韓國의 學者들이 臺灣이 原住民族言語教育을 지켜갈 수 있는 方策에 對해 質問하자, 黃教授는 다음의 네 가지 方策을 들어 答辯했다. 첫째, 로마자를 利用하여 原住民族의 言語 및 方言을 적을 수 있는 文字를 制定하고, 標準正書法을 마련하여 全國에 普及하였다. 둘째, 16個 民族의 42가지 方言을 가르칠 수 있는 教育課程을 體系化하고, 學習教材와 讀書資料 등을 編纂하여 教育部에서 一括的으로 排布하였다. 셋째, 原住民族語教育을 「國民教育 9年 一貫制」 커리큘럼 體系에 包含시킴으로써, 義務教育과 大學入試教育을 連結시켰다. 넷째, 原住民族語 熟練者 및 傳承者에게 財政的인 支援을 實施했다. 여기에는 멘토制를 통해 原住民族語를 傳承하는 教授者와 學習者에 對한 補助金, 原住民族語 認證資格을 가지고 있는 公務員에 對한 補助金 등이 包含된다.

臺灣의 이러한 成功的인 措置들은 「國家」와 「文字」가 臺灣原住民族言語의 持續 가능한 發展을 爲한 核心的인 力量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同時에 濟州語를 지키는 課程에서 우리가 參考할 만한 端緒를 提供해준다고 볼 수 있다.

### 가라, 濟州語: 2024 濟州學探訪

行事主催側은 大會 이틀째인 26日, 行事參加者 및 濟州의 藝術文學界人士들이 함께 濟州人들의 「恨」을 담고 있는 濟州語文學作品들 속 背景地를 探訪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濟州4.3事件의 發生地이자 金石範의

小説 『까마귀의 죽음』의 背景地이기도 한 觀德亭을 둘러본 뒤 東쪽으로 移動하여, 吳景勳의 小説 『濟州港』속에서 登場하는, 美軍政當局이 無辜한 住民들을 監禁했던 酒精工場을 訪問했다. 이어서 현기영의 小説 『濟州道 우다』의 背景地인 朝天里, 그리고 놀이판 「漢拏山」의 마당劇 『四月굿 꽃놀이』에 登場하는 千餘名의 어린이들이 虐殺되었던 北村里를 거쳐, 討伐隊에 依해 焦土化된 마을에서 逃亡된 住民들이 숨어들었던 사리물레를 마지막으로 日程을 마무리했다.

濟州市 朝天邑에 戀北亭이라는 朝鮮時代의 亭子가 있다. 戀北亭의 名稱에는 두 가지 說이 있는데, 하나는 濟州로 流配된 사람들이 漢陽에서 들려오는 기쁜 消息을 기다리면서 北쪽에 계시는 임금을 思慕한다는 忠情의 뜻에서 由來되었다는 說이다. 卽, 政治的 鬭爭에서 敗北한 많은 臣下들이 濟州島로 流配되었는데, 그들은 하루빨리 抑鬱함이 풀려 都城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 地名을 붙였다고 한다. 또 다른 說에 따르면 이 名稱은 秦始皇의 壽命을 받아 不老草를 찾아 濟州에 간 徐福의 傳說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머리를 조아리는 對象이 朝鮮의 君主가 아닌 秦始皇을 가리키며, 그리운 北쪽 亦是 漢陽이 아닌 咸陽을 意味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 걸었던 곳들을 背景으로 한 文學作品들은 모두 4.3事件을 告發한 作品들이지만, 中間에 들른 戀北亭과 濟州抗日記念館等地에서 우리는 濟州사람들의 「恨」이 日本帝國主義의 搾取와 抑壓에 對한 「恨」, 高麗時代와 朝鮮時代에 濟州로 流配當한 忠臣들의 「恨」, 나아가 秦始皇의 橫暴로 因해 故鄉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徐福과 童子들의 「恨」으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濟州사람들의 이러한 「恨」은 陸地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孤立되고 疏外當하며, 때로는 差別 받고 甚至於 누군가에 依해 蹂躪當하고 犧牲當한 濟州가 겪어온 「恨」이자, 오직 濟州語로만 表現할 수 있는 「恨」일 것이다. 濟州語를 保存하고, 文學 속에서 濟州語를 살릴 수 있다면 濟州는 陸地의 周邊部에서 벗어나 自我의 中心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林修澈教授가 結論지었듯이 이 番 「濟州學週間」은 높고 깊으며 넓은 行事였다. 이 세 個의 키워드를 빌려 이 番 行事가 濟州語의 發展에 주는 示唆點을 말하자면, 「國家」의 힘의 介入을 그 「높이」라고 할 수 있고, 「文字」記錄에서 漢字와 混用하여 쓰는 것을 그 「깊이」라고 할 수 있으며, 本土言語가 口語와 文語에서 널리 使用되는 것을 그 「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濟州語傳承者들이 臺灣의 本土言語에 對한 保護政策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